

I. 서 론

I. 서론

신이 내게 부여한 것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인정하는 침착함과

이 둘의 차이를 깨닫는 지혜이다.

신학자인 Reinhold Niebuhr의 유명한 이 기도문은 자녀들과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당면한 곤경을 잘 묘사하고 있다. 부모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인정해야 하는가? 또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수용하거나 변화시켜야 할 상황을 부모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청소년기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최대의 시련을 겪는다. 청소년은 부모의 통제로부터 자유를 추구하고 이 독립요구가 부모의 허용 범위를 넘어설 때 갈등이 일어난다. 청소년의 행동은 성인 초기로 이행되는 성격의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의 문제행동은 장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지만 근래에 급속한 사회변화와 가정교육의 기능약화로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 음주·흡연·가출·약물남용·음란물 탐닉 등의 일탈행동과 각종 범죄행위는 증가일로에 있으며, 그 원인의 하나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몰이해·무관심·대화단절·억압적 또는 과잉보호적 태도 등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구본용, 1997; 김의철·박영신, 1999; 김준호·김선애, 1997; 박진생, 2000; 이규미, 2000; 이상형, 1997; 이시형 외, 1997; 이재창, 1981, 1997; 이춘화 외, 1999; 한

상철, 1998; 홍성열, 2000; Glueck & Glueck, 1950; Shaffer, 2000; Snyder & Patterson, 1987). 예를 들면, 최근에 자주 논의되고 있는 “왕따”의 경우도 부모의 권위주의적 훈육방식과 같은 가정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진령·유형근, 2000; 구본용, 1997). 물론 학교환경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교우관계·학교폭력·흡연·직업·사춘기·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지만(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0) 이와 같은 문제의 기저에는 언제나 가정환경의 영향이 잠재되어 있다. 청소년의 79%도 비행의 원인을 부모의 무관심과 가정교육의 부족으로 인식하고 있다(최충옥, 1993).

흔히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영향력보다 교우관계의 영향력이 훨씬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부모는 여전히 청소년 자녀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교우관계는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부모는 인생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과 그 지속성에서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김희진·김경호, 1999). 김문조 등(1994)의 전국 10대 청소년 4천명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친 대상으로 친구(24%)보다는 부모(51%)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친밀하고 의미있는 인간관계이며, 자녀의 장래와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개인적 성장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61%)과 대화(48%) 또는 이해부족(56%)을 호소함으로써(김문조 외, 1994, 1995; 이영숙·고성혜, 1994) 자녀의 욕구에 대한 부모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부모의 역할은 성인의 다른 역할과는 달리 언제나 자발적인

것은 아니며, 일단 부모가 되면 들어킬 수도 없지만 지금까지 그에 대한 대비와 교육은 빈약한 실정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체·군대·운전 등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가정하면서도 부모교육에 관해서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비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효율적인 역할수행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득을 볼 수 있다고 믿지만 어떤 특성과 행동이 효과적인지 그 지침이 애매하다. 다행히 근래에는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고조되어 각종 프로그램이 사회교육기관이나 단체 및 대학의 교양과정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의 역할에 관해서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지라도 자녀관계에서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교육에 관련된 국내 문헌이나 자료는 학술적인 이론에 입각한 전문적인 내용(김숙자, 1989; 김세희 외, 1992; 남상인 외, 1995; 성영혜 외, 1994; 유안진·김연진, 1992; 이연섭·강문희, 1998; 이재연·김경희, 1989; 정문자, 1990; 한국부모교육학회, 1997)이거나 극히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활동이 요구되어(김명희, 1994; 문미옥·이혜상, 1995; 이시형 외, 1997a; 오영희, 1986; 이옥 외, 1995; 장대운, 1992; 정원식 외, 1996; 최윤진 외, 1993; 편영자·이형득, 1986; 한승희 외, 1993; 홍성윤·김유미, 1995) 부모들이 용이하게 이해하거나 실천하는데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후 해결책보다는 사전예방이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의 징후를 조기 발견하여 확대 또는 습관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청소년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자신과 주변세계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해심있는 부모를 필요로 한다. 부모·자

녀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과 수용은 부모 행동의 변량을 가장 많이 설명하며(Rothbaum 1986), 청소년의 여러 가지 특성을 보다 잘 예언하고(김성일, 1994, 1998; Hoffman, 1994; Maccoby, 1992; Parke & Buriel, 1998; Parish, 1987; Rathunde, 1991; Rohner, 1986, 1990), 청소년에게 자기 존중감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동기유발의 힘을 지니고 있어 부모의 훈육과 통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은 청소년기의 특성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자녀의 욕구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수용적 자세에서 지도하는 것이다. 청소년 자녀의 지도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과 부모가 흔히 당연시하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이해와 실천이 용이하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한 자녀지도의 원리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탐색하여 부모가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Ⅱ.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문제의 징조

1.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
2. 청소년의 정상적인 특성과
문제행동의 차이
3. 문제행동의 조기 증후

II.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문제의 징조

1.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방적인 사회화 모형으로 기술되어 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자녀는 학습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쉽지만 자녀도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동적 관계이다. 부모의 역할은 성인과 아동의 발달에 의한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부모역할은 성인의 다른 사회적 역할과는 크게 다르다. 부모역할은 언제나 자발적인 것은 아니다. 직업선택은 성인의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부모가 되는 것은 갑자기 닥치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일단 부모가 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 직업은 그만 둘 수 있으나 부모는 그 상황에서 물러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부모역할에 대한 대비는 다른 사회적 역할에 비해 빈약하다. 부모가 되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나 경험이 제공되지 않는다.

자녀양육의 목표나 기대도 분명치 않을 수 있다. 가정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변화가 다른 편에 작용을 한다. 급속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생활에 부모는 적응하기 힘들고 부모역할에 관해서 과거처럼 안정감을 지니지 못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모호한 느낌을 갖고 있다. 자녀의 사회화가 언제나 이 관계의 주기능이었으나 현대 부모가 당면한 문제는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와 미래에 경험할 다른 문화에 적응

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부모가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과거에는 결혼하면 누구나 자녀를 갖는 것을 당연시했으나 현대에는 인구폭발·식량부족 등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기 발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자기 탐색과 생의 목표를 결정하는 시기로서의 청소년기도 과거의 성인초기까지 연장되어 부모가 되려는 결정에 선택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자녀의 변화로 인하여 부모의 이전 태도와 방식을 바꿔야 할 때이고 부모 자신도 중년기의 위기로 인하여 변화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자녀 모두가 힘든 시기이다.

2. 청소년의 정상적인 특성과 문제행동의 차이

청소년은 조급하고 충동적이며, 변덕스럽고 감정이 격하며, 자의식이 강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다. 외면적으로 그들은 많은 것을 상당히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내면적으로는 불안정하다. 그들은 아동처럼 대우받는 것에 싫증이 나서 자신이 성인처럼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그들은 흡연과 음주를 하고 성적 매력을 개발한다. 부모의 통제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모두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도전하며, 나약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은 그들이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줄 알면서도 이를 행한다.

한편, 부모들은 청소년이 점차 성인으로 성숙해가는 것을 보면서 만족해한다. 그들은 자녀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으려

고 하지는 않으며, 갑자기 성인처럼 행동할 때에도 마음이 편치 않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자립욕구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가 남용하지 않는다면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하려고 한다. 성급한 자녀가 부모가 용인하기 전에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통제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도 자신의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는 중년기에 처하게 되어 자녀와는 대조적으로 체력저하·제한된 미래와 변화 가능성으로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증가되기도 한다(장휘숙, 1999).

이와 같은 통제의 문제를 보는 시각은 부모와 자녀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의 차이에 있다. 부모는 그 기준을 나이로 생각하며, 자녀는 스스로 느끼는 자신감을 더 중시한다. 청소년 자녀는 귀가시간을 고수해야 하는 것을 매우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자신감을 믿을 수가 없고 미숙한 증거로 간주한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귀가시간을 정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규칙을 정하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그러나 그들이 규칙을 무시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문제의 징조가 된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부적합한 것으로 느껴서 친구들과 쉽게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비판적이며 친구들의 장점을 모방하려고 한다(장휘숙, 1999). 때로는 그들에게 인정과 지위를 부여해 주는 좋지 못한 특성을 모방하게 되기도 한다. 그들은 친구들의 인정을 받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친구들처럼 복장을 하고 말하며 행동한다. 특정 음악에 대한 선호, 복장이나 부모와의 싸움에 대한 유사한 태도 등은 일부 청

소년들이 동료집단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징이다. 또한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성(sex)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모두에게 알리는 표시이다. 청소년이 동료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것은 정상적이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지향이 강하나 특히 부모가 거부적이고 자녀를 무시할 때 또래의 가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왕따”의 경우도 가해자는 스스로 원해서라기보다는 친구의 행동을 따라하여 또래집단에 소속되고 싶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강진령·유형근, 2000; 김혜원·이해경, 2000). 그러나 동료집단의 영향이 해가 되고 집단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청소년이 반사회적이거나 해로운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는 문제의 징조가 된다.

현대 청소년은 부모와는 다른 가치관에 기초한 생활양식을 소유하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순응하기보다는 정보통신이나 유행과 같은 일부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N세대로 불리우는 신세대 청소년들은 휴대전화·PC·MP3와 같은 기본 장비를 구비하고 가상공간의 세계에서 생활한다(박경숙, 2000). 부모세대는 절제와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독선적인 경향이 있지만 자녀들은 개인주의·요령주의·물질주의가 강하고 세대차를 드러낸다. 청소년은 성인의 제안과 조언에 부정적이다. 이는 개인으로서 자신을 주장하려는 욕구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그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 부모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래보다는 현재 생활의 만족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부모의 권위주의적 태도로 억압된 분노와 좌절감을 경험하며,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개성을 과감히 표현하여 부모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일부 청소년은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불사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고수하거나 자신의 이익과 쾌락추구에 전념하는 반면에, 다른 일부는 자신의 소신과 함께 기성세대의 가치관

과 타협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청소년의 모습에 즉각적인 가치판단을 하기보다는 대화의 노력과 이해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김희진·김경호, 1999). 청소년의 부정적 태도는 일종의 반항, 지시를 받을 나이가 아님을 부모에게 알리는 수단, 부모에 대한 징벌의 방법, 또는 비난이나 관여를 회피하고 부인하려는 책략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태도에 당황한 부모가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하면 청소년은 자신이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자립욕구의 표현으로서 부정적 태도는 정상적이다. 그러나 부모 자녀관계의 파괴를 가져오는 도전·적대감·공격성으로서의 부정적 태도는 문제의 징조가 된다.

청소년의 기분은 쉽게 변하며 그의 목표나 야망도 그렇다. 의견상 사소한 일에 의해서도 청소년은 기분이 좋거나 불안·우울에 휩싸일 수 있다.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성적 충동은 청소년의 심리적 긴장과 불안을 유발하고, 자신에 대해 매우 민감하여 타인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무력감을 느끼며,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한다. 또한 정서의 격렬함과 동요는 비행과 관련될 수 있고, 억제된 정서는 다른 대상이나 방향으로 표출되어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김혜원, 2000). 직업적인 목표에서도 갈피를 못잡고 의사가 되기를 원하다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잘 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망설인다. 그는 만일 수능성적이 낮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분야를 택할 경우 그것을 좋아하게 될 것인지와 같이 자신의 장래가 많은 가정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청소년의 불안정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면, 청소년은 수학성적이 낮아도 놀라지 말라고 부모에게 미리 말할지도 모른

다. 이 말은 부모를 대비시키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낮은 성적을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스스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래에 대한 불확실과 우유부단은 청소년에게 정상적이지만 장래에 무관심한 것은 문제의 징조이다.

반항은 청소년의 공통적인 특성이다(장휘숙, 1999). 청소년은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순응에 대한 압력에 저항한다. 부모는 흔히 이 저항을 “선별적인 나태”(selective laziness)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시간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선순위가 낮은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거나 하기 싫어한다. 반항은 일종의 부정적 태도이지만 청소년이 느끼기에는 압력에 대응할 힘이 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행동의 표시이기도 하다. 순응하는데 느리거나 잘 달래야 순응하는 반항적 태도는 정상적이지만 부모를 패배시켜서 얻는 개인적 만족감에 입각한 것이라면 문제의 징조이다.

청소년은 자의식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다(윤진·김인경, 1994; Elkind, 1997). 그들은 인지발달로 형식적 조작이 가능해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추론할 수 있으나 초기에는 타인도 자신과 동일한 관심을 갖는다는 자아 중심성을 나타낸다(김혜원, 2000). 그리하여 자신이 타인의 관심 대상이 된다고 믿고 자신을 매우 중요한 존재로 지각하는 “상상의 청중”(imaginary audience)과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또한 형식적 사고는 인과관계의 탐색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갖게 하고, 이상주의를 추구하여 세상의 결점과 모순을 발견하지만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못해 부모나 사회에 반항하게 만든다. 이러한 자아중심성은 때론 사고·임신·약물중독과 같은 무모한 행동을 감행하

게 만들기도 한다. 청소년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들의 70%정도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김문조 외, 1994, 1995). 그것은 자신의 고유성을 찾으려는 자아정체감의 형성과정에서 겪게되는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친구를 모방이나 동일시 대상으로 하여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면서도 때로는 개성을 나타내려고도 한다(김희진·김경호, 1999). 또한 그들은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길 원하며 신체적 흠이 있으면 난처해한다. 그러므로 신장·비만·치열교정·가슴 등에 관한 신체적 고민이 많다(김명희, 1999).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자신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아동에게 부과된 많은 제한에서 벗어났지만 성인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모험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일정한 흥미를 갖지 못한다. 그들은 시험을 하려고 하지만 결과에 항상 관심을 두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태도와 행동은 모두 정상적이다. 그러나 반사회적 감정, 자기파괴적 행동, 지속적인 우울증, 현실부정, 비생산성 등은 문제의 증후를 뜻한다.

3. 문제행동의 조기 증후

성장하는 자녀의 행동 특성은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취학전 아동은 어머니에게 매달리고 7-8세 아동은 공정성에 관심이 있으며, 10대는 비밀을 간직하려고 한다. 이것은 성장이 예정된 순서대로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정상적인 상황이며, 지나치

지 않는한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부정적 태도는 예상되지만 완전한 부정이나 통제의 거부는 위험한 표시이다.

문제의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래된 습관보다 새로운 것을 교정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하고 부모가 너무 늦게 개입하면 일이 잘못될 수 있다. 부모는 문제의 조기중세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문제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많은 경우에 성숙만으로도 문제가 해소되지만, 안전한 규칙은 의심이 날 때 문의하는 것이다. 행동은 학습되고 습관은 강화된다. 대개 부모의 행동양식이 자녀의 행동을 설명해준다. 자녀의 행동은 주로 학습되고 강화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 달리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에서 문제를 예고하는 행동들은 아동기보다 심각하고 자녀의 복지를 위태롭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은 스스로 원하는 성인과 같은 인상을 남기기 위하여 실험을 하고 모험과 자극을 추구할 태세가 되어있다. 청소년은 아동기의 유치한 행동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과거행동의 흔적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청소년들은 성인의 세계를 개인적 자유가 충만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자유의 의미를 쉽게 왜곡하여 무책임이 용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불만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동방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의 적대적 행동은 발각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나 청소년은 언제나 문제를 얼버무리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행동은 보통 고의적이고 즉각적인 긴장해소를 바란다.

다음에 열거하는 문제행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동으로서(김진숙·송수미·이명우, 1999; 김형태, 1993; Greeberg, 1974) 두 가지 면에서 유의해야 한다. 문제행동을 문제시하려면 문제의 정도가 중요하며, 문제의 청소년

은 대체로 여러 증후를 동시에 나타낸다는 것이다.

- 부모의 통제나 가치관의 거부
- 부모와의 대화 상실
- 가출 위협이나 가출 행위
- 권위자에 대한 존경심 결여
- 자유의 오용
- 성적 방종
- 심한 방어적 태도
- 부모의 제안에 대한 도전적이고 부정적인 태도
-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 관심이나 태도
- 학교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하는 성적불량, 무관심, 중퇴
- 절도·폭력과 같은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
- 가족과의 관계 단절
- 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과에 관계없이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경향
- 자제력의 빈번한 상실
- 부모에 대한 야비한 언행
- 알코올·약물의 남용
-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부주의한 충동적 행위
- 부모에게 반항함으로써 만족을 취함
- 자살 위협이나 시도
- 위법행위
-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거나 과오를 시인하지 않음
-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
- 사회적 고립과 부적절한 느낌

- 잦은 우울증
- 스트레스와 일상적인 긴장에 대처하지 못함
- 극히 변덕스러움
- 경쟁이나 성취의욕 결여
- 타인의 요구에 무작정 따르는 경향
- 물질적인 욕구에 대한 지나친 강조
- 부적절하고 무력한 느낌
- 방향이나 목표의 결여
- 잘못을 통해 배우지 못하는 것
- 지나친 자기 연민

이와 같은 문제행동의 이면에는 많은 경우에 청소년이 의도하는 목적이 있다. 연문희(1996), 이연섭과 강문희(1998), Dinkmeyer와 McKay(1990)는 문제행동의 목적을 관심끌기·세력과시·보복·부적절함의 표시·자극추구·동료의 인정으로 구분하였다. 청소년은 긍정적 방법으로 하지 못하면 부정적 방법으로 주목을 끌려고 하며, 권위에 도전해 영향력을 끼칠 때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보복을 시도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믿을 때 포기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한다. 이러한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감정과 문제행동의 교정시도에 대한 자녀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지나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책임감·협동심을 육성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일 수 있으므로 문제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자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복지에도 관심

을 갖도록 격려해야 하며, 이러한 격려는 자녀의 자존심을 조장하여 부모나 타인과 협조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에도 책임감을 갖게 되어 자녀는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문제행동의 변화에는 부모의 인내가 요구된다. 행동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 부모가 반응을 달리하면 자녀는 그동안의 행동이 통하지 않음을 조만간 깨닫고 변하게 된다.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자녀의 문제행동의 목적이 관심추구라면 그 요구에 관심을 보이지 말고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심을 보이는 게 좋으며, 세력과시가 목적일 때 같이 대응하여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힘의 위력을 실감시켜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녀의 의견이나 제안을 요구하여 협조를 구해야 한다. 보복이 목적일 때는 같은 식으로 대응하면 보복의 새로운 이유만 제공하게 되므로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을 피하면서 친절과 인내로 자녀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Ⅲ. 문제의 소지와 행동 변화에 대한 장애

1.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모
와 청소년
2. 변화에 대한 장애
3. 부모의 통제가 어려운 청
소년

III. 문제의 소지와 행동변화에 대한 장애

1.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모와 청소년

현대 가정이 핵가족화되어 가족간 유대가 약화되고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결손가정이 증가하여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나 부모·자녀관계는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 애정적이고 지속적이다. 그러나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자녀관계도 변화한다. 청소년기는 독립적인 자아탐색의 시기이므로 부모는 자녀의 심리적 이유(psychological weaning)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마음의 준비를 하여 새로운 상황에 재적응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학교를 중퇴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면 그의 결정은 장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잘못된 성인으로서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많은 판단착오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자신과 주변세계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해심있는 부모를 필요로 한다(장휘숙, 1999).

비록 원만한 부모 자녀관계가 가능하지만 많은 관계들은 너무 악화되어 개선의 여지가 없을 수 있다. 어떤 부모들은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있는 것으로 느끼고 문제가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 다른 부모들은 좋지 않은 관계를 인식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문제는 흔히 부모 자녀관계에서 초기의 문제가 확대된 것이다. 자신과 부모에게서 통제되지 않은 아동이 다루기 힘들고 불행한 청소년으로 성장한다. 초기에 통제할 수 있는 문제를 청소년 시기로 연장되게한 부모는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르면 부모의 통제를 수용하거나 기대에 부응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알게 된다.

부모는 자녀 행동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16세 자녀의 이성교제 욕망을 부모가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이다. 이성교제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부모가 자녀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할 때 문제가 생긴다.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낼 수도 있다. 이는 자녀가 자신과 흥미가 같은 친구를 만나지 못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적이 되도록 요구하면서 친구가 없음을 자녀의 반사회적 태도나 인기가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부모 자녀간의 문제로 변화될 수 있다.

의존과 독립, 순종과 반항, 이기심과 이타심, 이상추구와 현실타협 등 청소년의 감정의 양극성은 정서적 불안정을 나타내며,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발달과정의 과도기적 현상이다. 부모는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표출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부단한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이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권위주의적 태도로 대하면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정과 분노는 문제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청소년은 생리적·심리적 변화를 겪는다. 이 변화에 둔감한 부모는 자녀에게 조바심을 갖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쉽다.

이것은 청소년에게 압력을 추가하여 부모로부터 소원하게 만드는 부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청소년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갖게 된다. 청소년들에게는 동료집단의 인정을 받고 그에 소속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주로 부모·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의 평가와 기대에 의해서 형성됨으로 부모의 과잉 또는 과소기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희진·김경호, 1999).

일반적으로 청소년 자녀와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부모의 행동특성은 다음과 같다(김명희, 1999; 김희진·김경호, 1999; 김형태, 1993; 김혜숙, 1998; 연문희, 1996; 이영숙·고성혜, 1994; Greeberg, 1974).

- 상황에 과잉반응하여 사소한 문제를 위기로 만든다
- 자녀에게 성인처럼 생각하고 반응하기를 기대한다
- 자녀에게 적당한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 자녀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부여한다
- 절대 복종을 요구한다
-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다
- 자녀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다
- 자녀를 아동처럼 취급한다
- 자녀에게 모욕적으로 또는 비꼬아 얘기한다
- 부모 자신이 자녀에게 모범이 되고 있음을 망각한다

청소년은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착오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며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기를 꺼린다. 그는 부모가 걱정하는 문제를 부인하고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는 청소년의 약물복용과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염려하고, 청소년은 이것을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얘기한다. 부모는 이러한 무관심에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에 싸여 청소년의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위협하거나 처벌하거나 회유하려고 한다.

문제 부모의 청소년은 부모가 허용한 이상의 자유를 흔히 추구하며 “체제를 타도”(beat the system) 하려고 한다. 즉, 금지사항을 시도하려고 한다. 학교에서 체제를 타도한다는 것은 발각되지 않고 수업을 빠지는 것이며, 가정에서는 귀가시간이 늦은 이유를 변명하며 처벌을 피하는 것일 수 있다.

부모 자녀간의 문제는 흔히 청소년이 스트레스에 비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년이 문제를 갖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부모가 그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보호하거나 비난을 회피하거나 체제를 타도하기 위하여 청소년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 거짓말이 탄로나면 청소년은 방어적이 되거나 화를 내거나 거짓말을 한 이유를 정당화하려고 하며, 부모와의 관계는 대개 상호 불신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부모는 자녀가 다시 거짓말하기를 기다리며 청소년은 부모가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는 방어적이 되어 부모가 자신을 믿지 않으면 자신도 부모를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게 된다. 부정직하고 지나치게 방어적인 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동료들 간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부모와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의 행동 특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곽덕영·김미화, 1994; Greeberg, 1974, p. 176).

-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거나 통제를 거부한다
- 부모의 제안에 부정적이다

- 부모에게 불신의 이유를 제공한다
- 허용 범위 이상의 자유를 취하려고 한다
- 가족 단위의 개념을 부정한다
-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부모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한다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보다 쾌락을 우위에 둔다
- 부모의 가치관에 반대한다
- 부모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 부모에게 너무 의존적이다
- 부모에게서 움츠려들거나 무시하거나 욕을 함으로써 사이가 나빠진다
- 욕구불만을 그 원인이 아닌 부모에게 발산한다
- 부모를 벌하려고 저항이나 부정적 행동을 보인다
- 개인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모른다

2. 변화에 대한 장애

부모는 자녀가 불행하거나 문제에 봉착해 있음을 알면 그들을 도와주려고 조언을 하거나 안심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들은 것을 실천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라고 지시받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변화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강한 것은 아니며, 변화에 대한 장애요인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자기희생을 감수하려는 의욕과 끈기있게 참아내는 자기훈련의 동기이다. 개선의욕이 생기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

다(Greeberg, 1974, p. 180).

- 무력감이나 성급함
-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자기 불신감
- 어떤 노력도 시간낭비일 것 같은 느낌
-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무능력감
- 실패나 실수에 대한 두려움
-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강한 적대감
- 불성실한 노력
- 누군가 시작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 현재와 미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
- 반복된 실패로 인한 낙담
- 어색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

이와 같은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목표 중에서 중요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장애요소는 관심을 집중하여 적극적 행동과 성취하려는 결심으로 극복될 수 있다. 동기를 유발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성숙정도이다.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희생을 감수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개인적 희생을 요하는 경우에 변화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유발되지 않을 수 있다.

3. 부모의 통제가 어려운 청소년

많은 부모들에게는 문제의 예방을 논의하기에 너무 늦은 경

우도 있다. 그들의 자녀는 비이성적이고 지나친 요구가 많으며 존경심이 없고 무관심하다. 그와 같은 부모가 가장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는 만족한 듯 보이는 때이다. 많은 부모는 자녀의 위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도록 방치한다. 그들은 현재 전개되는 상황은 걱정스럽고 미래에 예상되는 상황은 불안스럽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부모로서 실패한 것으로 느낀다. 그들은 자신과 자녀, 외부 요인을 비난한다.

어떤 한 요인이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게 만들지는 않으며 부모도 자녀의 비행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문제를 발전시켰는지는 모르지만 동료집단의 압력과 사회적 조건이 반항적 태도를 조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가정·학교·사회의 방심이 현대의 청소년에게 존경할 만한 점을 남기지 않았고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일부 청소년들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자신에게 입히고 있다. 그들은 부모의 통제를 완전히 거부하고 도전적인 행동에 의해서 부모를 경멸한다. 그들은 처벌이나 위협에 의해 동요되지 않으며 가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모의 제안과 시도에 부정적이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부모의 한계를 계속 시험해 본다.

그들의 부모는 그들을 좋아하지는 않을지라도 해를 끼치려고는 하지 않는다. 부모는 자녀가 태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며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압력을 가하지만, 자녀는 변화에 저항하면서 부모의 시도를 좌절시킨다. 많은 청소년들은 부모가 말로만 얘기하고 압력을 받으면 물러선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들은

부모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부모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할 때 부모가 도와줄 것으로 믿고 있다.

다행히 이러한 청소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부모들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못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들은 다른 자녀에게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의욕이 아주 높다. 흔히 이들은 문제를 예방하는데 극단적 방법도 사용한다. 만일 그들이 허용적이었다면 이제는 아주 엄격해지려는 경향이 있고, 그 반대로 엄격했었다면 허용적으로 되어간다. 극단은 문제를 자초하는 것이며 중도적인 입장이 최선책이다.

IV. 수용적 태도에 입각한 자녀지도의 원리

- 1. 수용의 의미와 중요성**
- 2. 청소년 자녀지도의 원리**

IV. 수용적 태도에 입각한 자녀지도의 원리

1. 수용의 의미와 중요성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흔히 수용과 통제의 차원으로 구분되어 왔다(송길연 외, 2000; Shaffer, 2000; Thomas et al., 1974). 그러나 Rothbaum(1986)은 자녀양육에 관한 요인분석 연구를 토대로 수용 또는 온정의 차원이 부모의 행동에서 최대의 변량을 설명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Thomas와 Weigert 그리고 Winston(1984)도 부모의 수용차원이 청소년의 여러 가지 특성을 보다 잘 예언해 주는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수용은 지지·사랑·온정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으나 그에 내포된 의미는 거의 같다. Rohner(1986, 1990)에 의하면, 수용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며, 거부적인 부모는 자녀를 싫어하고 불인정하며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Schaefer(1965)는 수용을 애정과 지지를 표하며 긍정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사했고, Rothbaum(1986)도 수용도가 높은 부모는 자녀를 도우려는 입장을 취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의 수용은 자녀를 돕는데 중점을 둔 긍정적이고 정의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에서 수용의 핵심적 효과는 자신이 가치있는 인간이라는 정보제공의 측면과 동기유발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성일, 1994, 1998; Shaffer, 1996). 수용적인 부모가 자녀의 내면적 가치에 관해 언급한다면 여러 형태의 순응적 행동뿐만

아니라 자아조직의 여러 차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용적인 부모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는 자녀의 노력을 인정하며 자녀가 필요로 할 때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부모의 온정과 수용은 자녀가 자신을 갖게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에 집착하지 않게 한다.

훈육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이미 구비되어 있는 정서적·동기적 성향을 가동시켜야 하며, 이는 부모·자녀관계의 일반적인 정의적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 부모의 수용은 가정에서 부모가 언행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더 잘 배우게 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자녀의 순종은 부모의 수용과 정서적 유대 및 신뢰감의 구축과 관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ccoby & Martin, 1983). 수용적인 부모가 필요할 때마다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 자녀는 사회적 규칙을 내면화하고 적합한 행동장면을 구별하게 된다(Hetherington & Parke, 1999). 환언하면, 가장 효과적인 훈육방식은 수용과 설득을 강조하는 것이다(Spock, 1988). Gordon(1970, 1989)의 부모의 효율성 증진법(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Dinkmeyer와 McKay(1990)의 효율적인 부모역할을 위한 체계적 교육(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Ginott(1969)의 인간주의적 접근법(Humanistic Approach), 한국청소년상담원(1993)의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홍경자(1996)의 10대의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등의 대표적인 국내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한이나 통제보다 자녀의 욕구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Moore와 Eisenberg(1984)가 시사한 바와 같이, 수용은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며, 부모의 유도과 도덕

적 가치를 포함한 영향력을 받아들이게 하는 배경 또는 상황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부모의 수용은 자녀를 부모와 긍정적 방향으로 결속시킴으로써 자녀는 반응을 하고 부모의 지도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 부모·자녀관계가 친밀하고 온정적이면 부모는 자녀에게 압력을 가함이 없이 필요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수용적인 부모는 자녀가 보다 용이하게 사회화되고 바른 행동을 배울 수 있는 안전하고 갈등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다. Santrock(1996)은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지속적인 돈독한 관계가 환경의 건전한 탐색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Parish(1987)는 부모가 자녀에게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하고 가정이 즐거운 곳으로 지각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이 오래 계속될수록 청소년의 고통은 더욱 만성화된다고 하였다.

가정교육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을 지배하는 심리적·정서적 분위기이다. Bettelheim(1987)은 “자녀교육을 잘 시킨 부모들은 그들 자신이 책임있고, 자율적이며, 자신이 믿는 가치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산 표본들이었다”(p. 103)고 말했다. Spock(1988)도 그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는 이에 상응하는 사랑을 부모에게 보내며,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p. 133)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Spock(1990)는 21세기의 가정을 위한 조언으로 가족간의 유대가 가장 보람있는 것이며 부모는 자녀를 무시함이 없이 애정과 같은 가치를 자녀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용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청소년간의 유사성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독일·스페인·멕시코·푸에토리코의 중류층 고교생 집단에서 Thomas 등(1984)은 온정과 수용이 높을수록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가 강하다는 것

을 발견하였고, Eisenberg와 Fabes(1998), Saarni 등(1998)과 김성일(1994, 1998)도 부모의 수용이 자녀의 공감발달과 정서적 특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Rohner(1990)는 부모의 수용 부족이나 거부의 결과에 관한 800여종의 연구를 분석하여 부모의 수용 부족이나 거부가 청소년 자녀의 낮은 자존심·비행·공격성·대인관계 장애 등과 같이 성격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결론지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그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심리적 건강을 지향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관계를 육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정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성장과 변화 및 능력의 신장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인생의 역설적인 면이다. Gordon(1974)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행위이며,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과 같다”(p. 58)고 하였다.

반대로, 수용의 결핍이나 거부는 사람을 폐쇄적으로 만들며, 방어적이 되게 하고, 이야기하기를 꺼리게 하거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한다. 이와 같은 부모의 거부와 무관심은 자녀의 내부에서 적대감을 싹트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2. 청소년 자녀지도의 원리

부모와 청소년간의 문제는 흔히 초기의 문제가 확대·연장된 것이다. 처음부터 통제가 부족했거나 자녀의 행동을 오해 또

더 힘을 상실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통제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하기에 이를 수 있다. 부모의 지도 소홀은 자녀에게 거부와 무관심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실인 경우가 많다.

4) 부모는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한계설정은 자녀에게 준수하길 기대하는 규칙을 알리는 것이며, 그들의 특성과 과거행동을 토대로 결정하거나 최소한으로 정할 수 있다. 용돈·학업·가사분담·귀가시간·TV시청·이성교제 등에 관한 규칙과 한계는 자녀의 행동범위를 설정하는데 필요하다. 부모가 언제나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청소년은 비록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며, 규칙이 공정한 것이라면 부모의 통제를 존중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가치를 가르칠 때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며, 금지사항은 단호하게 전달해야 한다(곽덕영·김미화, 1994).

부모는 한계설정을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우려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10대들은 부모의 관심표시로 간주한다(Dinkmeyer & McKay, 1990). 지나친 허용이나 익애 또는 무일관성은 부모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며(김명희, 1999) 자녀에게 부모가 약하고 문제행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통제력이 약해 낙담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면 자녀는 자신이 버림받거나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기분으로 자존심이 약화되어 반항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부모의 통제부족과 비밀관성은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가치의 내면화를 방해하여 자녀의 책임감이나 자기 통제력의 약화와 공격성 유발 및 문제행동을 조장한다(김준호·김순형, 1995; Staub, 1996).

1994). 진로지도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다양한 직업의 역할·일의 세계·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직업의 경제적 측면·교육과 직업의 관계·인간관계 능력·의사결정 능력 등을 열거할 수 있다(김충기, 1988; 오치선 외, 1999).

또한 청소년기에는 급속한 신체적 변화와 성적성숙으로 성에 관한 호기심과 충동이 강렬한 때이며, 성개방 풍조와 접근이 용이한 각종 성관련 내용으로 인하여 잘못된 성지식과 태도를 갖게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은 성에 관련된 정보를 주로 친구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접하고 있으므로(권두승·조아미, 1998) 정확한 지식을 얻지 못하는 수가 많다. 실제로 성경험이 있는 중학생도 6-7%가 된다(김문조·권이종·김선업, 1994; 권두승·조아미, 1998; 문용린 외, 1996).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매우 추상적이거나 내용이 빈약하여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최윤진 외, 1993). 부모가 자녀에게 성교육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거북하게 느낄뿐만 아니라 성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년 자녀에게는 단순한 신체구조의 차이나 생리현상만이 아니라 성병·임신·피임·성충동·성역할·성 피해방지·건전한 이성교제와 같은 다양하고 실체적인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신의 심리적 결손이나 주변문제 때문에 자녀의 일상생활과 행동을 적절히 지도·관리하지 못하면 자녀는 처지가 비슷한 또래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거짓말·비행·자살·집단 괴롭힘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김석진, 2000; 김진숙·송수민·이명우, 1999; 심우엽, 2000; 이춘재 외, 1998). 나아가서 문제행동이 심해지면 처음부터 약한 부모의 지도력은

3) 청소년은 여전히 부모의 지도를 필요로 한다.

아동기에는 부모의 지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가치를 가르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청소년기에는 장래의 결정에 대한 생각과 행동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단기 목표를 수립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것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 관한 논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요즘은 직업과 학문의 다양성으로 선택과 결정이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내용은 학업과 진로문제이다(구본용 외, 1993; 오치선 외, 1999). 자녀의 능력과 희망을 무시하고 공부만 강요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하면 자녀는 심리적 부담으로 오히려 학업이나 진로계획에 무관심하게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상급학교 진학에만 집중되어, 거의 모든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은 매우 잘 알고 있으나 취미·오락·적성 등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측면에도 관심을 두는 경우는 1/3에 불과하다(한승희, 외, 1991). 그러나 대학정원·경제적 여건·자녀의 성적 등에 따라 대학진학이 불가능한 고교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는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정보에 관해 청소년의 40%는 전혀 모르고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는 4%에 불과하며, 부모 자신도 16%는 전혀 모르고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가 5% 정도인 것으로 판명되었다(최윤진 외, 1993).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해서 부모는 관련서적이나 신문 등을 통하여 사회·경제·기술환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일시적 유행이나 인기에 편승함이 없이 자녀의 특성과 희망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박성희,

빈번한 체벌이나 욕설은 자녀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초래하고 타인을 적대적으로 인식하여 자기방어의 일환으로 공격성을 유발한다(Staub, 1996). 실제로 중학생 827명의 조사결과를 보면, 부모의 폭력이나 폭언이 자녀의 집단 괴롭힘과 상관($r = .39$)이 있었고(이해경·김혜원, 2000), 초중등학생 854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박영신·김의철, 2000). 폭력은 악순환을 일으켜 세대간에 전이된다. 학생들의 71%가 경험하는 음주와 28%가 행하는 흡연 등의 약물남용(김문섭, 1999; 오치선 등, 1999)도 부모의 행동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이윤로, 1997). 자녀는 듣는 것보다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한 것을 더 믿으려하며 부모의 행동을 어른들의 행동으로 해석하여 시도해 보고 싶어한다. 이와 같은 부모의 폭력이나 약물사용은 점차 연소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비행과 밀접히 관련되기도 한다(김준호·김순형, 1995; 옥정·오윤희·정현옥, 2000; 이상현, 1997; 이춘재 외, 1998). 또한 가정폭력이나 불화는 해마다 1,000여명의 10대가 사망하는 자살이나 가출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권이중·권병진, 1999; 심우엽, 2000). 자녀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하고 언행을 일치시키며 좋은 모범을 보이는 부모를 원한다. 청소년의 60%는 기성세대의 언행이 불일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김문조 외, 1994, 1995), 부모의 ⅓도 자녀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한승희 외, 1991). 부모가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못하면 자녀는 실망하여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게 된다.

2) 부모는 10대 자녀들에게 여전히 행동의 모델이다.

청소년은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다. 그들은 위선과 이중기준을 쉽게 파악한다. 부모가 취해서 귀가할 때 자녀의 음주에 대해 훈계할 기반이 약할 것은 자명하다. 부모의 책임 중 하나는 모범이다. 자녀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부정직한 행동을 하면 거의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된다(정원식 외, 1996).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성인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 자녀가 부모의 장점보다 단점을 취하는 이유는 그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Dinkmeyer & McKay, 1990). 만일 부모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화를 내고 자녀가 그 효과를 보게되면 자녀는 당연히 같은 식의 행동을 택할 것이다. 부모는 자신이 무심코 보이는 언행에 예민하게 인식해야 한다.

근래에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폭력행동도 가정에서 부모의 솔선수범이나 묵인에 의해서 학습되고 강화된 면이 있다.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40-60% 가량이 경험하고 있고(김준호·김선애, 2000; 임영식, 1998),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중·고등학생도 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영희, 1999). 청소년의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부모의 간섭이나 거부 또는 자극추구의 동기도 작용하지만(박윤창 외, 1995; 박준희, 1984; 이미리·이주경, 1999) 부모의 폭력행동을 관찰하거나 경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권이중 외, 1998; 전희정·지영숙, 1999; 장휘숙, 1999; Rice, 1999). 민수홍(1998)의 조사에 의하면, 가정에서 부부간 욕설은 45%, 기물파손은 26%, 아내구타는 22%, 고교생 자녀에 대한 욕설은 32%, 구타는 2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나 그들은 동료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함께 부모를 중요시하고 가치관도 대체로 부모와 유사하다(장휘숙, 1999).

문화관광부의 조사(1998)에 의하면, 42%의 부모들은 자녀지도의 어려움이 자녀에 대한 이해와 자녀교육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62%는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승희 등(1991)이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14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90% 이상의 부모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세대차의 단면을 드러냈다. 부모는 전통적 가치 규범을 고수하고 청소년은 이를 벗어나려 하며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부모는 청소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10대는 급격한 신체변화에 고민이 많고 새로운 사고방식에도 익숙하지 못해서 거침없는 비판과 이상적 논리 또는 격렬한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새로운 인간관계·경제적 자립심·지적성숙·정서적 성숙·직업선택·여가선용·인생관 확립 등(권두승·조아미, 1998)의 발달과제와 여러 가지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대인관계 기술도 습득해야 한다.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자녀만이 아니라 사회의 청소년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사람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자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특성과 기대를 이해해야 한다(이기돈, 1991).

기돈, 1991; 이영숙·고성혜, 1994; 정원식·김재은·박성수, 1996; 최윤진 외, 1993; 한국부모교육학회, 1997; 한국청소년상담원, 1993; 한승희 외, 1993; Bigner, 1989; Elkind, 1997; Ginott, 1969; Gordon, 1970, 1989; Greeberg, 1974; Greydames, 1991; Hamner & Turner, 1985; Maccoby, 1992; Parke & Buriel, 1998; Rohner, 1986, 1990)에서 부모의 수용적 태도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항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제안들은 자녀에게 이해심을 보여주는 것들이며, 부모가 흔히 당연시하는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들이다. 이 원리들은 부모 자녀간의 갈등과 청소년 자녀의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사소한 문제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1) 청소년기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해는 지식에 의해 증진된다. 청소년기는 시험하고 이상을 꿈꾸며 좌절을 겪기도 하는 불안정한 시기이다. 그리고 주변인(marginal man)으로서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 사회적 경험과 책임감 부족으로 양면적 감정을 느끼며 자아의식을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남상인 외, 1994). 부모가 청소년기에 관해 많이 알수록 자녀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현대의 청소년기는 부모가 경험했던 시기와는 같지 않다. 현대 사회가 20여년 전과 다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특성은 발달과정에서의 전형적인 지적·정의적·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향을 반영하는 면도 있다. 근래의 신세대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영상문화에 익숙해 있으며 개방적이고 물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정용교, 1999). 그러

는 과대평가하는 수도 많고 그들의 심리적 변화와 욕구에 둔감한 경우도 있다. 청소년은 자신의 판단력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나 문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모의 걱정이나 근심이 사실무근한 것이라고 믿고, 부모는 그들의 무신경에 더욱 자극되어 상호불신과 갈등이 심화된다.

청소년은 충동적이고 자의식이 강하며 많이 알고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불안정하다. 그들은 친구와 비교하길 원하고 친구의 인정을 받을 때 가장 적합한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친구와 같은 언행·복장·기호 등을 모방한다. 그러나 그들이 부모가 정한 규칙을 무시하거나 동료집단의 해로운 영향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미래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지 않거나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는 위험신호로 간주해야 한다.

그들이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는 데에는 무력감·자기불신·방법에 대한 무지·실패에 대한 두려움·분노·당혹감·낙심·과거에 안주하려는 경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의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성숙을 기대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희생이 수반되는 변화를 위해서 쉽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 갈등을 빚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즐겁게 지켜볼 수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자녀의 사회적 역할을 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모의 노력은 그들의 만족감으로 보상을 받는다.

다음에 제시하는 자녀지도의 원리는 부모교육과 역할에 관한 각종 자료와 문헌(김희진·김경호, 1999; 남상인 외, 1995; 이

Patterson(1986)의 강압적 순화론(coercive cycles)에 의하면, 부모의 통제 약화에 기인한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은 부모의 회피 반응을 유발하여 자녀의 공격행동이 증가한다. 게다가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 부족이 자녀의 일탈된 또래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체감을 형성하여 부모에게 정서적인 거부감을 일으킨다. 부모는 자녀의 일탈행동에 대한 인내 수준을 높여서 통제시도를 감소함으로써 자녀의 공격적 행동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김준호와 김순형(1995)의 조사에 따르면, 중등학생의 35%는 가정에서 규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문제행동은 “안 돼”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거나 일관된 처벌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계없이 방치하면 문제행동이 증가한다. 부모가 야단치지 않으면 하여도 된다고 오인할 수 있고 평소에 마음대로 내버려 두다가 기분에 따라 사소한 행동에도 심한 처벌을 하면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제가정은 거의 공통적으로 규칙이 없다. 부모의 통제 부족은 청소년 자녀의 약물사용이나 외현적 행동과 상관을 보이며(Stice & Barrera, 1995), 소년원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가 규칙이나 생활지침을 제공한 경우가 없고 자녀의 일상생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조현진·박성수, 1991). 초·중등학생의 25%정도가 경험하는 “왕따”(집단 따돌림)의 경우에도(박경숙 외, 1998; 정용교, 1999) 가해 학생의 가정환경의 특성은 부모의 공격성을 묵인하거나 권위주의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관심과 관리 부족으로 밝혀졌다(강진령·유형근, 2000; 박진생, 2000; 이춘재·곽금주, 2000; Olweus, 1994). 청소년의 77%가 충동을 느끼고 14%가 실제로 시도하는 가출도 그 원인이 개인

적·사회적 요인과 가정의 구조적 결손 및 불화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해부족·무관심·방임 때문으로 나타났다(김지자 외, 1992; 김향초, 1998).

5) 청소년의 반항적인 행동을 예상해야 한다.

만일 자녀가 부모의 기대나 요구에 때때로 반항하지 않는다면 이상하고 불건전할 수 있다. 청소년이 자신을 한 개인으로 존중한다면 환경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봐야 한다. 이것은 부모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느끼는 바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건전한 반항에서 청소년은 부모의 압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해방감을 갖게 되고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 불건전한 반항은 부모의 감정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부모를 경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 따라 자녀의 복종을 요구하고 이를 당연시 한다(한승희 외, 1991). 무조건적인 순종은 발전적이지 못하고, 반항과 도전이 생활을 발전시키는 연습이 될 수 있다. 반항은 청소년의 특권이며, 인류발전에는 기존 질서에 반항하는 도전적 자세도 필요하다(윤운성·가경신, 1996). 반항의 수용이 개방적 정신이며 의사표현을 격려하는 자세이기도 하다. 반항은 공격심을 승화시키는 긍정적 기능이 있으며 자신을 극복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이기돈, 1991). 즉, 반항은 안정된 정체감 형성의 필요조건인 자율성과 연결되며 자기 주장에 대한 건강한 욕구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적 행동이 반항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모와 마찰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지만 이를 너무 억제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하면 청소년은 더 난폭하게 된다. 논쟁·무시·

분노·거절 등으로 표현되는 반항이 심할 경우에는 반사회적 품행장애로 변화될 수도 있다(이춘재 외, 1998). 부모와의 갈등과 힘의 경쟁은 자율을 요구하는 청소년에게 불가피한 결과이다(송길연 외, 2000). 자녀는 자신의 정체감 형성에 대한 노력이 존중되기를 원하며, 여의치 않으면 반항이나 문제행동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급격한 감정변화를 보이는 청소년기에는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과 더불어 외부로부터의 자신에 대한 침해나 자신의 의사와 행동에 상치되는 요구에 반항하게 된다. 반항은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의 권위·지배적 제도에 대한 저항으로서 의존의 역표현 또는 독립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며, 흡연과 같은 허세적 유형, 부모나 교사에 대한 반발 등의 영웅적 유형, 제도나 이념에 대한 논리적 반박의 유형으로 나타난다(남상인 외, 1994; 정영윤, 1992). 또한 반항은 경제적 역할의 혼란·성적 표현의 제한·학업문제·진로선택의 어려움·부모의 불화·허용적 양육방식에서도 기인한다(이기돈, 1991).

청소년은 자주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타인의 지시·명령·간섭·훈계에 민감하고 분노를 나타낸다. 부모의 지나친 또는 일방적인 충고나 조언은 자녀에게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지각되어 반항을 유발할 수 있다(김희진·김경호, 1999; 정원식 외, 1996). 그러므로 비판이나 설교는 대화단절의 지름길이며, 청소년의 예민한 감수성도 많은 반항과 상관이 있다. 반항은 내적인 무언의 반항도 있으며 이것이 축적되어 돌발적인 문제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반항은 부모에게 지배당한다고 느낄 때 시작된다. 부모가 부정적이고 비판적 태도를 취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지시가 모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반항을 유발할 수 있다. Forehand(1977)는 세부적이고 분명한 α (alpha)지시에 비해서 모호하고 순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새로운 지시를 또 내리는 β (beta)지시가 순종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할 기회를 부여하여 순종적 행동은 칭찬하고 어느 정도의 반항은 용인하거나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자녀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무슨 수단이든 가리지 않는다. 흔히 이것은 부모에게 위협이 되지만 처음에 굴복하면 자녀는 부모에 대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된다. 부모는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압력이나 위협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자녀에게 보여야 한다. 그 후에는 그 입장을 약화시키거나 물러서지 않아야 하며, 이때 부모의 단합된 태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부모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강화의 덫(reinforcement trap)에 걸려 자녀의 위협이나 공격에 굴복하게 되기도 한다. 부모와 자녀간의 불유쾌한 상호작용이 중단되면 부적 강화의 과정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공격이나 반격의 강도가 증가한다(Patterson, 1986). 예를 들면, 청소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될 때 분노 폭발을 함으로써 결국 성취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회유·양보·항복은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저지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부정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타당한 이유를 알려줘야 하며(이기돈, 1991; 임영식·한상철, 2000), 자유

는 적절한 판단과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음을 얘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모 자신과 자녀의 스트레스도 견디어 내어야 한다. 자녀는 싫어하는 책임이나 규율도 필요시 준수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

7) 자녀에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10대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의 하나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이기돈, 1991).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자녀의 갈등을 해소하고 의사결정력과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곽덕영·김미화, 1994). 그러나 그들은 선택의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때 부모가 자녀의 결정을 대신하면 자주성의 발달을 저해한다. 자녀에게 선택과정에서 잘못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허용해야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지나치게 잘 해주는 것은 부모의 욕심이며, 자녀에게 의타심·무기력·열등감을 조장할 뿐이다(장대운, 1992). 청소년은 충동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사태의 결과에 대해 언제나 예상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모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할 때 그 모험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자녀와의 논의를 통하여 가능한 결과를 인식하게 하고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토록 해야 한다.

위협보다는 합리적 설명이 효과적이며, 긍정적 상호작용을 가져오는 토의가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검토하고 대안을 탐색하게 한다.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르칠 때 부모는 자녀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야 한다. 부모의 관여가 잘못된 행동의 재발을 항상 방지하는 것은 아

나며, 자녀에게 규칙을 위반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대신 가르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부모는 자녀를 후원해야 하지만 자녀의 행동은 자녀 자신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부모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며 자녀에게 이것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 자녀가 행동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보게 할 수 있다. 모든 잘못은 돌이킬 수가 없고 일부 판단 착오는 장래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녀는 깨달아야 한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결국 자신의 문제로 남게 된다(최윤진 외, 1993).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문제로 남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녀의 문제행동은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8) 자녀가 자신의 결정과 판단에 대해 얘기하도록 조장해야 한다.

정상적인 청소년은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많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때때로 판단착오를 한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실수에 대해 비판적이어서는 안되며, 자녀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로부터 배우게 된다.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때 부모는 자녀에게 실천하기 전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이미 잘못된 결정을 한 후에는 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같이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

그러나 좋은 대화는 자녀의 자존심과 자율성에 큰 위협을 주지 않을 때 가능하다. 만일 부모가 “그것 봐, 전에 내가 말했지?” 또는 “내 말을 들었더라면...” 등과 같이 얘기한다면 자녀는 방어적·부정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에 의해서

배우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다. 또한 자녀에게 자신의 실수에 대한 조롱이나 모욕을 당할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자기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위축되거나 방어적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은 자신이 처음 한 얘기에 부모가 집착할 것이라는 느낌이 없어야 자신의 견해를 마음놓고 바꿀 수 있다. “이제야 마음을 돌려 내 말대로 하는구나”와 같은 얘기는 청소년에게 앞으로도 쉽게 마음을 바꾸지 못하게 한다.

이규미(2000)와 정원식 등(1996)은 청소년 문제의 가정배경 요인으로 자녀와의 대화 부족과 단절을 대단히 중시하였다. 자녀와의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의 대화방식에 의해서 확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하루 중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은 31%가 30분 이하이고 전혀 없는 경우도 18%이며 어머니와의 1-2시간의 대화시간도 53%에 불과하고(문용린 외, 1996), 49%가 평소의 가정 분위기가 부담스러워 대화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안귀덕 외, 1992). 그러므로 청소년의 15%만이 부모를 의논 상대로 생각하며 46%는 부모가 억압적으로 대할 때 가장 원망스럽게 여기고 있다(김지자 외, 1992). 게다가 청소년의 85%는 기성세대를 권위적으로 지각하며(김문조 외, 1994), 58%는 부모가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기 얘기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구본용 외, 1993). 부모와의 대화부족이나 단절의 이유는 그밖에도 핵가족화·부모의 분주한 생활·지나친 교육열·가정불화나 구조적 결손·TV나 비디오 시청 등이 있겠지만(김문조·권이중·김선업, 1994; 김지자 외, 1992),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둔감하여 그들의 사고와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일방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자녀도 부모처럼 성장하여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Rice, 1999). 자녀는 부모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때로는 친구처럼 같이 얘기하기를 원하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싫어한다(이기돈, 1991). 대화는 친밀감(rapport)이 우선 조성되어야 진실하게 진행되며 부모·자녀 관계의 조화도 이를 수 있다. 자녀가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을 자유롭게 털어놓고 이를 부모가 인정해 주어야 긍정적 감정이 나타나게 되고 자기이해와 긍정적 행동도 수반된다. 즉, 대화를 잘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상대방의 기본 태도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적 이해와 타인을 그대로 인정하는 무조건적 존중 및 개방적이고 정직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장대운, 1992).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발적 문제해결·공감적 이해·가족간의 평등을 촉진하는 반면에 방어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갈등과 문제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부모는 비판·설교·협박·추궁·명령과 같은 역기능적 대화의 형태를 시정하려면 자신이 어떤 종류의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김진숙·송수민·이명우, 1999). 대화 부족이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력을 저하시키고 갈등을 유발하여 자녀로 하여금 비행친구와 접촉하게 만든다(김선남, 1994; 김준호·김순형, 1995; 최태산·홍경자, 1997; Barnes & Olson, 198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인경(1993)과 최태산 등(2000)의 조사결과를 보면, 부모와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우울증이나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으며, 소년원생의 경우에는(조현진·박성수, 1991) 부모와 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부모는, 특히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교육에서 대화보다는 체벌을 우선하고 있다(한승희 외, 1991).

Ginott(1969)은 부모가 자녀의 단점이나 과거를 들추며 훈계·설교·비난하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없다고 하였다. 청소년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전에 부모의 기준에 맞추어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비난하거나 지시한다면 자녀는 부모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폐쇄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 대화실패의 주된 이유는 청소년 자녀를 아동으로 인식하여 통제 또는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그들의 비판적 태도와 불안정 및 민감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요 부모교육 프로그램(김인자, 1989; 홍경자, 1996; 한국청소년상담원, 1993; Gordon, 1970; Dinkmeyer & McKay, 1990)에서는 자녀와의 대화방법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

명령·설교·위협·경고 등은 해결책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고, 평가·비교·조롱 등은 상대방을 비하시키고 잘못에 초점을 맞추어 상처를 입히는(김인자, 1997) 심리적 좌절감을 일으키는 말투이며, 상대방에게 자신감 저하·적대감·의타심·열등감·불신·수치심·반발 등을 가져온다(연문희, 1996; 유효순 외, 1980). 대화의 기본 태도는 한 개인으로서 자녀를 존중·수용하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대화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평가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 행동에 대한 표현이다.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나 전달법”(I-message)을 사용하는 것이다(김인자, 1989; Gordon, 1970). 이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그 행동이 내게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나의 느낌 그리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는 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의 성장을 돕고 행동의 책임을 부여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가족의 응집성도 높일 수 있다. 이에 비해 “너 전달법”(You-message)은 자녀를 무시하고 판단하며 지시하는 것으로 자녀에게 불공정·거부감·저항감을 유발하고 자존심을 손상시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 왜, 만일”과 같은 표현은 흔히 공격이나 위협 또는 비난을 의미함으로써(곽덕영·김미화, 1994)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든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김애순과 윤진(1997)도 문제가 되는 행동을 평가나 비판없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do언어(예를 들면, 자주 지각하는 자녀에게 “너, 자주 늦는구나”와 같은 표현)가 어떤 행동의 잘못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며, 문제행동을 전반적인 성격 특성이나 인격으로 확대시켜 표현하는 be언어(“너, 왜 게으르니?”)는 구체적인 문제행동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감정만 손상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와 자녀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내용은 주로 학업·장래계획·친구·복장관계이며(김영모·원석조·최현숙, 1985), 성에 관련된 면은 여전히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춘재 외, 1988). 성개방 풍조에 따라 매우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자녀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행위에 대한 책임도 강조해야 한다.

9) 자녀의 얘기를 잘 경청해야 한다.

청소년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청중을 기대한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길 원하지만 설교나 비판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녀는 자신의 얘기가 부모의 설교로 이어질 것으로 생

각하지 않는한 많은 화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다. 부모는 그들의 의견에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으나 그들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우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태도는 자녀에게 부모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와 마주 앉아 그들에게 관심을 집중한다는 것은 자녀에게 큰 의미가 있다. 부모가 자녀의 얘기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존중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자녀와 긴 얘기를 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회를 봐서 그렇게 할 때 자녀는 부모의 관심을 고마워할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는 대화를 격려하고 자녀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녀의 얘기를 수용하는 것은 자녀의 감정이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실제로 자녀의 감정을 알 수는 없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자녀는 감정을 표현할 때 보통은 감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정적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도록 훈련받아 왔고 흥분하면 명확한 사고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에게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얘기를 비판없이 수용하고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녀와 감정이 다르더라도 감정은 일시적임을 인식하여 이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남상인 외, 1994). 자녀의 얘기에 관심을 표현하는 태도는 하던 일을 멈추고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거리를 가까이 하고, 듣는 말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전경숙, 1997).

자녀의 감정·느낌·생각을 같이 이해한다는 것은 공감적 이해(empathy)를 의미하며, “제3의 귀”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김애순·윤진, 1997). 자녀의 얘기를 경청할 때는 말의 이면에 있는 의미와 감정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화를 방해하지 않고 주의깊게 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극적 또는 반영적 경청(reflective listening)이라고 한다. 반영적 경청은 자녀의 말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며, 자녀가 자신의 모습과 감정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부모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영적 경청은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도록 돕고 친밀한 감정을 유도하며 상대방도 경청하게 만들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할 뿐만 아니라(김인자, 1997) 문제를 합리적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부정적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정화작용(catharsis)을 촉진시키며 온정적 관계를 증진하게 된다(Gordon, 1970).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반응하기 전에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하며,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 자신의 감정과 자녀의 비언어적 표현(body language)을 파악한 후 단정적이 아닌 잠정적인 반응을 한다. 자녀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추측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추측이 맞는지 자유롭게 반응할 것이다. 청소년의 유·무언의 반항도 그들을 개인으로서 인정하고 의견을 경청·존중해 주면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10) 자녀와의 언쟁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많은 가정에서 언쟁은 일상적이지만 언쟁을 피하는 최선의 길은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누군가 항상 시비를 걸 때

언쟁은 피하기 어렵지만 일상적이라기보다는 간혹 발생하는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논쟁에서 손해볼 것은 없다. 손해보는 측은 언제나 부모이다. 왜냐하면 자녀와 언쟁을 벌이는 부모는 자제력의 부족을 노출시키는 것 이외에도 자녀를 부모의 수준으로 격상시키거나 자녀가 부모를 그들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부모와 언쟁을 벌이는 청소년은 부모의 인내심을 시험해 보는 것이기도 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미 얘기한 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논쟁은 회피되거나 크게 감소될 수 있다. 부모의 논리가 이치에 맞는 것이라면 방어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입장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부모도 말하기 전에 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자녀보다 성숙한 수준에 있는 부모가 언쟁에 휘말려 들지 않기로 결심할 때 언쟁의 빈도는 크게 감소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10% 정도는 부모와의 의견대립이나 갈등을 겪고 있으며(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대학생은 35% 정도가 된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 자녀는 흔히 부모의 태도나 신념에 대해 도전한다. 논쟁은 타인의 견해를 바꾸기보다는 각자의 태도만 강화시킨다. 견해차를 인정하고 반영적 경청 방법을 사용하거나 화제를 바꾸어 감정손상을 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11) 타협도 가끔은 문제의 발생을 피하는 방법이다.

많은 문제가 사소한 것, 예를 들면 침구정리·귀가시간 준수·가사협력 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다. 어떤

결정이 가치관이나 정당성의 문제를 내포할 때 부모는 자신의 확신을 전지해야 하지만, 타협이 부모나 자녀의 입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면 용인될 수 있는 일치점을 찾는 것이 자녀에게 귀중한 교훈을 줄 수 있다. 즉 차이도 상호 양보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복장이나 두발의 모양이 이상하게 보여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거나 유행을 추구하는 행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일부 안목은 칭찬하고 거슬리는 부분은 변형요령을 알려주며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 자녀의 호응을 얻을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복장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부모와 타협 후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52%)가 개성대로 입는 경우(2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용린 외, 1996). 자녀와의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자녀를 참여시켜 각자의 견해를 설명하거나 협의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임영식·한상철, 2000).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사람에 따라 그리고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Steinberg와 Levine(1990)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갈등해소를 위한 협동적 해결방안으로 6단계를 제시하였다. 우선 상호 존중과 같은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상호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일정한 시간동안 비판없이 각자의 견해를 피력한 후, 해결방법을 합의하여 그 사항을 문서화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시간까지 설정하는 것이다.

타협은 상대방의 의견을 적당히 수용하고 자신의 의도도 적당히 관철할 수 있으며, 자녀의 자존심 향상과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된다(윤운성·가경신, 1996). 타협으로 절충점을 찾는 것이

자녀에게도 유리함을 깨닫게 할 수 있고 자신이 존중받은 만큼 부모 의견도 존중하게 되며, 협상하는 중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필요한 것을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훈련도 된다. 즉, 타협은 비판이나 평가가 아닌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김인자, 1997).

12)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알아야 한다.

자녀는 밤늦게 귀가하거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흔히 경험적으로 부모의 반응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모의 기대를 알아야 한다. 이 기대는 부모가 미리 알리기 전에는 자녀는 알 수 없다. 만일 부모가 자녀의 약물복용이나 성 또는 다른 문제행동을 우려한다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의 진의를 파악한다면 이에 도전하려는 허세는 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협 또는 강요하지는 말고 자녀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신중히 논의해야 하며, 충동적이거나 어리석은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부모가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는 것은 곧 자신의 가치관을 보강하는 것이다.

특히 자녀의 진로에 대한 기대를 표현할 때에는 강요함이 없이 원하는 방향과 이유를 설명하되 결정은 자신이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의 기대가 진실로 자녀를 위한 것인지 또는 부모의 대리만족을 위한 것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음주를 못하게 하면 자녀는 음주에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 대신 음주가 좋지 않은 이유를 자녀에게 얘기한다. 비록 자녀가 음주행위를 바꾸지 않더라도 자녀의 마음에 부모의

애기가 남아 있어 음주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든 경우에 자녀를 믿고 책임있는 행동을 기대한다는 것을 얘기한다. 물론 부모는 말한 바를 실천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관성있게 행동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기대는 행동을 예측하고 자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능력을 제한 또는 신장시키는 자기 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작용을 한다(박분희, 1999; 윤운성·가경신, 1996). 자녀는 부모가 기대한대로 성장한다. 윤운성(1999)이 중등학생 566명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자녀 성적·학교교육·교사 존경에 대한 기대가 자녀의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능력에 비해 너무 높으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단편적 행동만으로 판단해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기돈, 1991). 또한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자녀에게도 장래성이나 장점을 발견하여 인정해줄 수 있어야 한다.

13) 가족의 모임이나 활동에 자녀를 참여시키되 강요하지는 않아야 한다.

청소년은 가족과 행동을 함께 하자는 요구를 거절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요구는 청소년도 가족 단위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청소년 자녀에게 항상 가족과 함께 있기를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지만 가끔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행동하기를 원치 않는 이유를 부모가 이해하려고 애쓸 때 자녀의 욕구에 대한 통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청소년 자녀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있다는 인상을 손상케 된다고 느낀다면 그렇게 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청소년은 친구와 같이 있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이와 같은 감정에 민감해야 하며, 동료집단의 압력을 피하려는 것을 가족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청소년은 가족과 함께 있기를 강요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 중요한 가정 일에는 기꺼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많은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취업으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도 그것을 기대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3)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부모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외국에 비해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이 현저하게 낮다. 가족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함께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이나 구경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부터 가족회의·놀이·운동·이웃돕기 등에 이르기까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은 많다.

14) 자녀가 친구를 집에 데려오도록 격려한다.

자녀는 부모가 어떤 유형의 친구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면 부모에게서 용인받지 못할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 중 64%는 자녀와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있지만(김지자 외, 1992), 친구를 부모에게 소개하도록 자녀에게 권해야 하며, 친구를 부모가 존중하고 난처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자

녀는 친구와의 사적인 관계를 가족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자녀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려고 하며 친구도 자기 부모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기를 바란다. 부모는 자녀의 친구를 자신의 자녀가 친구의 집에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식으로 대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는 청소년 자녀보다 친구의 영향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여(최윤진 외, 1993) 부모의 26%가 자녀의 친구에 관해 사전에 알아본 후 교제여부를 결정한다. 좋은 친구에 대한 부모의 기준이 자녀에게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친구의 선택권은 자녀에게 일임해야 한다. 자녀의 친구에게 관심을 두려면 집으로 초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등학생의 30%이상이 교제하고 있는(김문조·권이중·김선업, 1994; 김용태·임은미·김인규, 1996) 이성친구는 부모에게 소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 청소년은 자신의 친구관계를 부모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며 부모가 이를 인정할 때 부모와의 관계는 더욱 발전되고 청소년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확인하고 즐거움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구본용, 1999). 또한 친구는 성인기의 자기 가치감의 중요한 예언 요인이 된다.

김택호와 김인규(1999)가 청소년 2800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65%가 교우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필요시 서로 도움 뿐만 아니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해심과 지도력이 있는 친구를 가장 선호하고 이기적이고 눈치없는 친구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자존심과 자아개념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백경임·서동인, 1993; 이은혜·고윤주, 1999; Hartup, 1983). 그들의 대화 내용은 주로 학업·친구·이성·TV·가정문제 등이고, 어울리는 장소는 길거

리나 음식점·유흥업소이며 집에서 만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김문조·권이종·김선업, 1994).

교우관계 형성의 곤란은 사회적 능력을 학습할 기회가 적어 정서 불안정·부정적 성격형성·문제행동 유발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서동인, 1992). 이연경과 권정혜(2000) 및 최선화(1996)는 청소년의 3% 이상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약물남용의 원인이 부정적인 가정 분위기와 정체감 혼란으로 인한 문제회피 외에도 친구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으며, 구본용(1997)도 집단 따돌림의 원인을 청소년의 정체감 형성과정에서의 좌절감과 가족간의 갈등 및 타인 수용능력의 부족만이 아니라 동료집단의 압력에 동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연섭(2000)과 이춘화 등(1999)은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의 예방을 위해서 부모가 생일 초대와 같은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의 근황을 파악하며 바람직한 교우관계 조성에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동료집단은 부모를 대신한 지원과 안정감·자신감·연대감 및 구성원에게 사회적 지위를 제공하며, 성숙한 인간관계의 기회를 부여하고, 행동의 기준이 되며, 자존심과 정체감 형성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권두승·조아미, 1998; 김계현 외, 1998; 서동인, 1992; 유성경, 1998; 장휘숙, 1999; 정옥분, 1998).

청소년의 40% 정도가 혼자 있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을 때 좌절감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김용태·임은미·김인규, 1996) 하는 것은 친구와 어울리는 기회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외부와의 관계가 비교적 적은 핵가족의 자녀는 다양한 사람들의 특징을 경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방적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15) 자녀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자녀가 가족의 일원임을 느낀다면 가정의 일을 분담해야 한다. 분담해야 할 가사가 심부름을 가는 것이든, 집을 보는 것이든, 동생을 돌보는 것이든, 자기 방을 정리하는 것이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든, 청소년은 가정의 협동정신에서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많은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들이 가정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아무 것도 하려들지 않는 하숙생처럼 생활하도록 묵인하고 있다. 그와 같은 자녀들은 책임감에 관해서 배우는 바가 없으며, 가정은 바로 그것을 배워야 하는 곳이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공부를 위해서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유보시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과잉 보호적인 태도이다(최윤진 외, 1993).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는 자신의 지위와 처지에 적합한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대신해주면 자녀의 역할습득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16) 자녀에게 자신의 여가활동을 택하게 한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의 직업 선택을 대신하려 들며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까지 간섭한다. 부모는 자녀가 시간을 낭비한다고 비난하며 많은 경우에 이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녀는 할 일을 다하고 시간이 남으면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가를 보낼 수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언제나 바쁜 생활을 하는 부모가 자녀도 무엇인가 바쁘게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여가시간에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안되고 독서는 괜찮다고 한다

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자녀가 시간을 허비한다고 느낀다면 부모는 우려하는 이유를 자녀와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가는 기본적으로 자녀 마음대로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한다면 여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실제 계획은 자녀가 수립하되 여가활동이 생산적 일을 하기 위한 시간임을 강조하고 유익한 활동에 대한 권유는 자녀에게 참고로 제공되어야 한다(최윤진 외, 1993).

청소년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8~9시간 정도이지만 자습이나 학원수강 같은 학습에 관련된 활동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2시간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도종수·정문성, 1993; 최윤진 외, 1993). 여가의 형태로는 친구를 만나거나 노래방을 가는 것과 같은 사교행동, 독서를 하거나 TV·영화·스포츠 관람 등의 대체적 행동, 규칙이 있는 운동을 하거나 PC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경쟁적 행동, 종교단체나 동아리에 가입하는 조직적 행동, 등산·야영·낚시와 같은 탐험적 행동, 수영·체조·스키·줄넘기·자전거 타기와 같은 신체적 행동, 그림·음악·공예 등의 창작 행동, 음악·미술 감상과 같은 심미적 행동, 산책·부업·봉사활동·쇼핑 등의 일상생활에서 탈피하기 위한 변화추구 행동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이연숙 외, 1996). 그러나 청소년들은 주로 컴퓨터 게임과 비디오나 텔레비전 시청·친구와 얘기·영화나 만화 보기·노래방 가기·음악감상·독서 등과 같은 단조로운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안귀덕 외, 1992; 오치선 외, 1999; 이연숙 외, 1996; 한국청소년상담원, 1998), 운동이나 동아리 활동과 같은 적극적 행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는 휴식·기분전환·긴장해소·자기계발과 자기표현·

건전한 인간관계·사회적 성취의 기회가 되며, 협동심과 지도성 또는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고 비행도 예방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권두승·조아미, 1998; 권이중, 1996; 오치선 외, 1999; 이연숙 외, 1996). 부모는 자녀의 아동기에는 잘 돌봐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지만 청소년기에는 쓸데없는 참견이나 통제가 아닌 필요시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과보다는 자녀의 자기결정력의 개발과 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자녀에게는 포기하면 더욱 낙담하게 되기 때문에 비판이나 경멸을 하거나 대신해주기 보다는 긍정적 노력을 격려하고 반드시 완전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해야 한다. 자녀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정에 참여할 때 더 책임을 느낀다.

17) 부모는 잔소리를 적게 해야 한다.

부모가 정리정돈·숙제·목욕·조기귀가·짧은 통화와 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마다 자녀는 그만 좀 하라고 반발한다. 물론 자녀가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그것을 하도록 잔소리를 반복하는 것이 일의 수행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잔소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흠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는 그것에 조건형성이 되어 버린다. 자녀에게 자기 책임을 일깨워 줄 필요는 있으나 부모가 한번 얘기한 후 불복종이나 지연의 대가가 무엇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책임 이행에 보다 효과적이다. 처벌은 특전의 상실이나 제약을 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가 부모의 입장을 자녀에게 명백히 하는데 도움이 되며, 그것을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때 자녀는 협조와

책임이행의 압력을 느끼게 된다.

잔소리는 결코 좋은 부모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으며(장휘숙, 1999; 김형태, 1993; 한국청소년상담원, 1993), 청소년의 80% 이상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는 자살의 원인 중 하나도 부모의 잔소리이다(정원식 외, 1996). 그리고 약물사용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장휘숙, 1999) 비행성향을 유발하고 원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김준호·김순형, 1995). 그러므로 잔소리는 자녀가 부모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게 만들고 문제행동을 강화할 뿐이며 언어적 학대로 볼 수도 있다.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하다.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자녀와 갈등시간이 지난 후 상황이 진정되었을 때 상황을 간단히 얘기하는 것이 좋다. 갈등상황 중에 하는 얘기는 흔히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8) 부모는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한 방식으로 자녀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싫증나게 듣는 얘기는 “내가 너와 같은 나 이 때에는...”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10대들로 하여금 부모를 무시하게 만든다(곽덕영·김미화, 1994). 그들은 부모의 젊은 시절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얘기는 부모가 현재의 자녀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며, 자녀들이 부모가 했던 것보다 쉽게 하려든다고 비난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모는 현대 청소년 자녀가 당면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곤란하다. 부모의 청소년 시기와 현재 자녀가 매일 경험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현대 청소년의 세계는 부모가 경험

했던 것과는 같을 수 없으며, 사회가 과거와 같은 식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사회와 의식구조의 변화로 인한 세대간 갈등을 부모는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이기돈, 1991). 즉, 자녀가 새로운 사조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일이 없도록 강요한다. 부모는 자신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되지 않아도 부모·자녀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이기적인 처사이며 자녀가 현대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부모도 현 시대의 상황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

문용린 등(1996)의 조사에 의하면, 부모의 22%가 자녀와의 세대차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자녀도 부모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신념체계인 사회적 표상에 따라 양육하며 의사소통 유형이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황상민·김현정, 1996). 그러므로 황상민(1997)은 세대차를 가치나 규범의 차이로 보다는 어떤 행동이나 사건에 대한 판단 유형이나 양식의 차이로 간주하였으며,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도 부모와 청소년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대체로 부모는 근면·성실·극기·전통·권위를 중시하는 반면에 자녀는 경쟁·자극·개인주의적 사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애순·윤진, 1997).

누구나 성장과정의 사회적 상황과 특수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세대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이춘재 외, 1988). 또한 기존의 사회적 가치규범을 지키려는 기성세대가 급변하는 세계의 새로운 가치관을 적절히 수용하거나 변경하기 어렵고 자녀도 부모의 행동지침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특히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대중매체 등을 통해 폭넓게 받아들

이는 자녀에 비해 현실생활에 급급한 부모는 이전의 지식과 정보만으로 권위를 고집하기 어려워 더욱 많은 격차를 보이게 된다. 자녀는 부모가 가졌던 것과 같은 문제를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험난한 현대 사회에서 기인되는 부가적인 문제들도 안고 있다. 공정한 부모라면 현대의 청소년 자녀를 지도하는 기준이 20여년 전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19) 자녀의 사생활에 관한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

청소년이 부모와 갈등상황에 있지 않는 한 감추려는 행동을 불법적인 또는 위험한 어떤 것을 하려든다는 표시로 느낄 이유가 없다.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 자녀는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비밀을 유지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신뢰받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자기만의 사생활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에게 비밀이 많은 이유는 자신의 고유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려는 자립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자녀의 방은 사적인 장소이고 일기·가방·책상 서랍 등도 사적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신뢰에 입각한 관계의 이점은 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일기나 편지를 보거나 전화를 엿듣는 것은 불신의 증거이며, 자신의 불안과 죄의식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이다(Rice, 1999). 청소년에게는 부모가 자신을 불신한다고 느낄 만한 이유가 없는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Ginott, 1969).

부모의 호기심이 염탐으로 발전되어서는 안된다. 부모는 자녀가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다면 엿듣기보다는 자녀

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 그렇지만 부모 중 41%는 교육상 자녀의 일기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한승희 외, 1991). 일기가 자녀의 생각과 일상생활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지만 사생활 침해는 부모의 일방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원만한 부모·자녀관계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관한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으며, 자녀도 부모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0)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부모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청소년 자녀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성공, 즉 진학을 위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다(한승희 외, 1991). 성인 위주의 시각으로 자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부만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와 평생 같이 살 수 없고 자녀도 언젠가 독립하여 자신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녀는 독립과 자유를 추구하고 부모는 가능한 오래 자녀를 붙들어 두려고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뢰·책임·사랑 등을 강조하는 환경을 제공했다면 부모로서 할만큼 했다고 생각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가정교육에서 배운 점이 많기를 기대하며 그것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자녀를 존중해야 독립적이고 책임감있는 인간으로 성장한다. 부모의 근심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노력한 것에 만족스럽게 느낀다면 그와 같은 근심은 감소될 수 있다.

V. 결 론

V. 결 론

부모가 자녀의 태도와 행동에 대하여 계속 우려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을 위한 상담기관이 근래에 증설되고 활동도 증대되어 왔다. 많은 청소년들은 개별상담이나 집단치료를 받고 있고 수많은 검사도 개발·실시되고 있다. 부모는 자녀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비난에 대하여 분개한다. 상담전문가들은 자녀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를 두려워하며 성취감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또 자녀의 적대감·무관심·비협조·질투·경쟁·의타심 등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의 해결책은 단지 상담기관을 증설하거나 행동을 측정하는 정밀검사를 많이 개발하거나 사례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부모의 협조없이는 자녀를 제대로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중후보다는 원인에 관심을 돌려서 진단이나 치료가 아닌 예방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녀의 태도와 행동을 우려하고 자녀와의 접촉을 이미 상실한 부모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Mead(1934)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의미있는 타인”이 우리를 보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경향이 있다. 만일 부모가 자녀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이처럼 거부당한 자녀들은 성장한 후 부모가 되면 그들의 자녀를 다시 거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즉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실제로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많은 부모들은 그들 자신이 어렸을 때 유사한 경험을 하였으며(Rohner, 1986),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행동의 요인이 된다(장휘숙, 1998; 최충옥, 1993; Adams et al, 1996). 대체로 그들은 부모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 모델을 접해 본 경험이 없고 자녀의 성장에 관한 지식이 빈약하다(Conger & Petersen, 1984).

부모의 성격과 행동양식을 충분히 알면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특정한 습관과 적응행동, 건전한 성장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압력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꼭 악화되거나 잘못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의도적이 아니라 주로 인간적인 과오 때문이다. 실수는 흔히 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은 낙관적이다. 그 해답은 지식에 있으며 아무도 배우는 데에는 늦지 않다.

부모는 자녀에게 온정과 친밀감을 제공함으로써 험난한 세계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용적인 방식이 좋고 권위주의적인 방식을 나쁘다고 가정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책인가를 더 고려해야 한다. Ginott(1969)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이해는 금물이라고 경고하였으며, Elkind(1997)도 부모가 10대들을 너무 많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실제로는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며, 10대들도 더 큰 세계에서 당면하게 될 기준과 가치를 가정에서부터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강조하였다. 근래에는 자녀를 위하고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자녀를 독점하고 지나친 간섭을 하며 과대평가하는 과잉보호 부모들

이 많고, 이들의 자녀는 자기 중심적이고 인내심이 부족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박아청, 2000). 수용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자녀의 부정적 경향에 동조·지지·찬성하거나 부모의 허용·익애·과보호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준상(1996)은 부모·자녀관계의 연구결과는 대부분 상관연구에서 유도된 것이므로 인과론적 해석은 곤란하다고 주장하지만, 부모의 성격이나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와 같은 장기간의 자연스러운 상황설정이 곤란하여 인위적인 실험이 불가능하고 논리적·경험적으로 그 인과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가정 분위기와 자녀의 특성 및 학교와 사회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상호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자녀의 양방적 관계가 중요하다. 자녀의 문제행동이 부모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기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Stice & Barrera, 1995).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일시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은 없다. 인간관계의 역동성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이 개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한 기본원리들은 가정과 부모·자녀의 특성에 적합하게 신축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분위기·형제관계·부부갈등과 같은 가정의 구조나 분위기도 자녀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기본원리들은 지도시에 직접 관련된 측면에만 국한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원리들은 부모가 이미 경험적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부모의 진지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 부족 및 감정 조절의

실패에 있는 것 같다. 효율적인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언행일차와 솔선수범이 요구되며 때때로 솟구치는 자신의 감정을 성숙하게 조절하고 부단히 인내하는 자기수련도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며(홍성필, 1999), 대체로 자녀는 부모를 닮게 마련이다. 심지어 자녀가 싫어하는 부모의 특성까지도 닮는다. 유전적 소인과 더불어 부모가 주도하는 가정에서 장기간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특성과 행동양식까지 익혀서 자신의 특성으로 만든다. 부모가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한 자녀는 그것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다. 부모는 인간적인 약점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언제나 모범적인 행동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자신의 모든 언행이 자녀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령 · 유형근(2000). 집단 괴롭힘. 서울: 학지사.
- 곽덕영 · 김민화(1994). 부모교육론. 서울: 형성출판사.
- 구본용(1997). 청소년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박성수 외 4인(편),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pp. 7-36).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구본용(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한국청소년상담원(편), 청소년의 또래관계 (pp. 5-16). 제21회 청소년문제 토론광장 자료. 서울: 편자.
- 구본용 외(1993). 청소년의 삶, 고민과 대화.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권두승 · 조아미(1998). 청소년 세계의 이해. 서울: 문음사.
- 권이종(1996). 청소년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권이종 · 권병진(1999). 청소년 유해환경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 권이종 외 5인(1998). 청소년 교육론. 서울: 양서원.
- 김계현 외(1998). 청소년 이해론.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명희(1994).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 김명희(1999). 현대사회와 부모교육. 서울: 학문사..
- 김문섭(1999). 청소년문제. 한국청소년학회(편), 청소년학 총론 (pp. 305-331). 서울: 양서원.
- 김문조 · 권이종 · 김선엽(1994).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서울: 삼성복지재단.
- 김문조 외(1995). 한국 청소년의 의식세계.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김석진(2000). 초등학교 집단 따돌림 가해 실태와 관련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1(1), 111-142.
- 김선남(1994).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일(1994). 부모의 수용이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3, 90-128.
- 김성일(1998). 부모의 수용과 청소년의 공감발달. 청소년학연구, 5(1), 21-51.
- 김세희 외(1992). 자녀와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 서울: 양서원.
- 김숙자(1989). 부모참여·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애순·윤진(1997).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영모·원석조·최현숙(1985). 한국 청소년 연구.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김영희(1999). 청소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신체적 폭력 실태와 관련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0(2), 101-118.
- 김용태·임은미·김인규(1996). 현대 사회환경과 청소년의 좌절 설문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편), 현대 사회환경과 청소년의 좌절(pp. 41-58). 제12회 특수상담사례연구 발표회 자료.
- 김의철·박영신(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행동 특성의 형성.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인경(1993). 청소년기 자아 중심성과 가족유형 및 가족 의사소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96-119.
- 김인자 역(1989). 부모역할 배워지는 것인가.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김인자(1997).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 8가지. 서울: 사람과 사람.

- 김준호·김선애(1997).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8(1), 5-28.
- 김준호·김선애(2000).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1(1), 89-110.
- 김준호·김순형(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자 외(1992). 미래를 향한 가정교육. 서울: 양서원.
- 김진숙·송수민·이명우(1999). 가족상담기법Ⅲ.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충기(1998). 자녀지도와 부모교육. 서울: 성원사.
- 김택호·김인규(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실태분석. 한국청소년상담원(편), 청소년의 또래관계 (pp. 19-65). 제21회 청소년문제 토론광장 자료. 서울: 편자.
- 김향초(1998). 가출 청소년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형태(1993). 부모·가정의 역할.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문제론 (pp. 329-354). 서울: 양서원.
- 김혜숙(1998). 관계와 문제. 한국청소년상담원(편), 청소년문제론 (pp. 223-253). 서울: 편자.
- 김혜원(2000).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과 의미. 발달지원학회(편), 청소년 문제에 관한 상담과 임상적 접근 workshop 자료 (pp. 1-10).
- 김혜원·이해경(2000). 집단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 김희진·김경호(1999). 건강가정과 신세대.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남상인 외(1994). 총론적 부모교육 평가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

년상담원.

남상인 외 4인(1995). 부모교육 학술세미나 종합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도종수·정문성(1993). 청소년 생활실태 및 의식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 4(4), 64-79.

문미옥·이해상(1995). 바른 부모교육 프로그램. 서울: 양서원.

문용린 외(1996). 신세대의 이해. 서울: 삼성복지재단.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백서. 서울: 저자.

민수홍(199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숙(2000). 요즈음의 달라진 아이들. 김호권·이성진·이상주 (편),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 (pp. 113-128). 서울: 교육과학사.

박경숙·손희권·송혜정(1998). 학생의 왕따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분희(199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기대. 인간발달연구, 6(1), 1-16.

박성희(1994). 가정에서의 진로교육 실천방안. 한국청소년상담원 (편), 부모교육 학술세미나 종합보고서 (pp. 199-210). 서울: 편자.

박아청(2000). 사춘기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박영신·김의철(2000). 폭력가해·폭력피해·폭력 무경험 집단의 인간관계와 심리행동 특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pp. 88-89).

박윤창·이미경·윤진(1995). 자극 추구 동기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53-64.

- 박준희(1984). 학교폭력. 서울: 정민사.
- 박진생(2000). 임상장면에서 본 청소년 문제. 발달지원학회(편),
청소년 문제에 관한 상담과 임상적 접근 workshop자료
(pp. 45-67).
- 백경임·서동인(1993).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친구관계.
한국청소년연구, 4(4), 45-63.
- 사회정신건강연구소(2000). 청소년기를 밝고 건강하게. 서울: 교
육과학사.
- 서동인(1992). 청소년의 친구관계. 한국청소년연구, 3(3), 5-17.
- 성영혜·윤석희·이경화(1994). 부모교육. 서울: 문음사.
- 송길연 외(2000).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심우엽(2000). 교육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안귀덕 외(1992). 한국 청소년 문화II.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연문희(1996). 성숙한 부모 유능한 교사. 서울: 양서원.
- 오영희(1986). 부모교육. 서울: 형설출판사.
- 오치선 외(1999). 청소년지도학. 서울: 학지사.
- 옥정·오윤희·정현옥(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및
애착유형과 문제행동의 관련성.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
회 논문집 (pp. 258-259).
- 유성경(1998). 또래 체제로서의 관점. 한국청소년상담원(편), 청소
년 이해론 (pp. 57-75). 서울: 편자.
- 유안진·김연진(1992). 부모교육. 서울: 정민사.
- 유효순·홍준표·이선희(1980). 어린이 지도를 위한 대화의 기법.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윤운성(1999).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3(4), 247-258.

- 윤운성·가경신(1996).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요? 서울: 양서원.
- 윤진·김인경(1994). 청소년기의 자아 중심성. 발달심리학회(편), 한국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pp. 101-123). 발달심리학회 학술 심포지움 자료. 서울: 편자.
- 이규미(2000). 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 상담의 문제와 대안적 기법. 발달지원학회(편), 청소년 문제에 관한 상담과 임상적 접근 workshop 자료 (pp. 11-35).
- 이기돈(1991).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모. 서울: 배영사.
- 이미리·이주경(1999). 청소년 초기 폭력행동의 유형에 따른 관련 맥락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0(2), 119-141.
- 이상현(1997). 소년비행학. 서울: 박영사.
- 이시형 외(1997).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기 심리사회학적 적응. 서울: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시형(1997a). 학교 정신건강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연경·권정혜(2000). 약물남용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pp. 254-255).
- 이연섭(2000). 자라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김호권·이성진·이상주(편),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 (pp. 211-228). 서울: 교육과학사.
- 이연섭·강문희(1998). 부모교육. 서울: 정민사
- 이연숙 외(1996). 한국 청소년의 여가형태 및 여가 공간적 특성. 청소년학연구, 3(1), 21-45.
- 이영숙·고성혜(1994). 청소년기 가족문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옥·김향은·손화희(1995). 청소년 자녀에게 이렇게 하세요. 서울: 학지사.

- 이윤로(1997).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과 치료. 서울: 문음사.
- 이은혜·고윤주(1999). 대학생의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기능 및 친구 관계망의 구조적 변인간의 관계. 교육학연구, 37(3), 201-219.
- 이재연·김경희(1989).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 이재창(1997). 청소년 성폭력의 원인과 대책. 정원식 외 7인(편), 청소년의 폭력 및 성폭력 (pp. 21-52).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재창 외 4인(1981). 청소년 문제 종합진단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춘재·곽금주(2000).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서울: 집문당.
- 이춘재 외(1988).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춘재 외(1998). 발달정신병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춘화 외 3인(1999). 집단 따돌림 예방 및 지도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해경·김혜원(2000). 폭력노출이 집단 괴롭힘 가해와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95-113.
- 임영식(199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3), 1-26.
- 임영식·한상철(2000). 청소년 심리의 이해. 서울: 학문사.
- 장대운(1992). 청소년 부모교육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장휘숙(1998). 발달정신병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전경숙(1997). 오늘의 부모역할. 서울: 원미사.
- 전희정·지영숙(1999).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6), 123-137.

- 정문자(1990). 부모교육의 원리와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정영윤(1992). 심리학 분야에서의 청소년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
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 연구의 동향과 과제 (pp. 37-55).
서울: 편자.
-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용교(1999). 집단 따돌림의 다양한 유형과 교육적 극복방안. 한
국청소년연구, 10(2), 143-169.
- 정원식·김재은·박성수(1996). 이 시대의 자녀교육. 서울: 교육
과학사.
- 조현진·박성수(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한국심리
학회지: 발달, 4(1), 55-72.
- 최선화(1996). 청소년과 약물남용. 서울: 홍익재.
- 최윤진 외(1993).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에 관한 연
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윤진 외 4인(1993). 가정지도 편람 II.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충옥(1993). 가정과 청소년 문제.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
문제론 (pp. 17-29). 서울: 양서원.
- 최태산·이은희·서미정(2000).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 존중감·
학교 스트레스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관계. 한국심리
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pp. 178-179).
- 최태산·홍경자(1997).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심리적 변인분석.
교육심리연구, 11(2), 291-322.
- 편영자·이형득(1986). 후회없는 아버지의 길. 서울: 형설출판사.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3).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서울: 저자.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0).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 서울: 저자.
- 한국부모교육학회(1997). 부모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한국의 청소년 지표. 서울: 저자.
- 한국청소년상담원(1993).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저자.
- 한국청소년상담원(1998). 청소년의 놀이문화. 청소년상담소식, 24, 8.
- 한상철(1998). 청소년기의 위험행동. 청소년학연구, 5(3), 45-62.
- 한상철 · 조아미 · 박성희(1997). 청소년 심리학. 서울: 양서원.
- 한승희 외(1991). 어른들은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청소년연구, 2(2), 58-84.
- 한승희 · 노혁 · 김지영(1993). 부모가 알아야 할 청소년기.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준상(1996). 청소년 문제. 서울: 연세대 출판부.
- 홍경자(1996). 10대의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광주: 한국심리교육센터 출판부.
- 홍성열(2000). 범죄심리학. 서울: 학지사.
- 홍성윤 · 김유미(1995). SOS 부모들을 위한 지침서. 서울: 교육과 학사.
- 홍성필(1999). 21세기 자녀진로와 부모의 역할. 한국청소년상담원 (편), 제7회 부모교육 학술세미나 자료 (pp. 5-18). 서울: 편자.
- 황상민(1997).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세대차에 대한 사회인지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52-166.
- 황상민 · 김현정(1996). 사회적 표상의 개념으로 분석한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인식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1), 229-250.
- Adams, K. S., Sheldon-Keller, A. E., & West, M. (1996). Attachment organization and history of suicidal behavior in clinical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2), 264-272.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Bettelheim, B. (1987). *A good enough parent*. New York: Vintage Books.

Bigner, J. J. (1989). *Parent child relations* (3rd ed.). New York: Macmillan.

Conger, J. J., & Petersen, A. C. (1984). *Adolescent and youth* (3rd ed.). New York: Harper & Row.

Dinkmeyer, D., & McKay, G. D. (1990). *Parenting teenagers*.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Eisenberg, N., & Fabes, R. A. (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 ed., Vol. 3, pp. 701-778). New York: Wiley.

Elkind, D. (1997). *All grown up and no place to go* (2nd ed.). Reading, MA: Addison-Wesley.

Forehand, R. (1977). Child noncompliance to parental requests. In M. Hersen, R. M. Eisler, & P. M. Miller (Eds.), *Progress in behavior modification* (Vol. 5, pp. 111-148). New York: Academic Press.

Ginott, H. G. (1969). *Between parent and teenager*. New York: Macmillan.

Glueck, S., & Glueck, E. T. (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Commonwealth Fund.

- Gordon, T. (1970).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David McKay.
- Gordon, T. (1974). *Teacher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Peter H. Wyden.,
- Gordon, T. (1989). *Teaching children self-discipline*. New York: Random House.
- Greeberg, K. R. (1974). *A tiger by the tail: Parenting in a troubled society*. Chicago: Nelson Hall.
- Greydames, D. E. (1991). *Caring for your adolescent*. New York: Bantam Books.
- Grusec, J. E., & Goodnow, J. J. (1994). Impact of parental discipline methods on the child's internalization of values.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4-19.
- Hamner, T. J., & Turner, P. H. (1985).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artup,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th ed., Vol. 4, pp. 167-230). New York: Wiley
- Hetherington, E. M., & Parke, R. D. (1999). *Child psychology* (5th ed.). New York: McGraw-Hill.
- Hoffman, M. L. (1994). Discipline and internal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26-28.
- Maccoby, E. E. (1992). The role of parent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8(6), 1006-1017.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In P. H. Mussen (Ed.), *Handbook*

- of child psychology* (4h ed., Vol. 4, pp. 1-101). New York: Wiley.
- Martin, B. (1975). Parent-child relations. In F. D. Horowitz, E. M. Hetherington, S. Scarr-Salapatek, & G. M. Siegel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4, pp. 463-54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ore, B. S., & Eisenberg, N. (1984). The development of altruism. In G. J. Whitehurst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 1, pp. 107-174). Greenwich, CT: JAI Press..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Parish, T. S. (1987). Family and environment. In V. B. Van Hasselt, & M. Hersen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 168-183). New York: Pergamon.
- Parke, R. D., & Buriel, R. (1998). Socialization in the family.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 ed., Vol. 3, pp. 463-552). New York: Wiley.
- Patterson, G. R. (1986). Performance models for antisocial boys. *American Psychologist*, 41, 432-444.
- Rathunde, K., & Csikszentmihalyi, M. (1991). Adolescent happiness and family interaction. In K. Pillemer & K. McCartney (Eds.), *Parent-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

- (pp. 143-16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Rice, E. P. (1999). *The adolescent* (9th ed.). Boston: Allyn & Bacon.
-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Beverly Hills, CA: Sage.
- Rohner, R. P. (1990).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3rd ed.). New Haven, CT: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 Rothbaum, F. (1986). Patterns of maternal acceptance. *Genetic, Social &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2(4), 435-458.
- Saarni, C., Mumme, D. L., & Campos, J. J.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 ed., Vol. 3, pp. 237-309). New York: Wiley..
- Santrock, J. W. (1996). *Adolescence* (6th ed.). Madison, WI: Brown & Benchmark.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haffer, D. R. (1996).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Belmont, CA: Wadsworth.
- Snyder, J., & Patterson, G. R. (1987). Family interaction and delinquent behavior. In H. C. Quay (Ed.),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pp. 216-243). New York: Wiley.

- Spock, B. (1988). *Dr. Spock on parenting*. New York: Simon & Schuster.
- Spock, B. (1990). It's all up to us. *Newsweek* (Special edition), Winter, 106-107.
- Staub, E. (1996). Cultural-societal roots of violence. *American Psychologist*, 51(2), 117-132.
- Steinberg, L., & Levine, A. (1990). *You and your adolescent: A parent's guide for ages 10 to 20*. New York: Harper & Row.
- Stice, E., & Barrera, M. (1995).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nd adolescents' substance use and externalizing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1(2), 322-334.
- Thomas, D. L., Gecas, V., Weigert, A., & Rooney, E. (1974). *Family socialization and the adolescent*.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Thomas, D. L., Weigert, A., & Winston, N. (1984). Adolescent identification with father and mother: A multi-national study. *Acta Paedologica*, 1(1), 47-68.

ABSTRACT

Parental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Adolescents' Misbehavior

Sung-Il Kim*

The adolescent years are especially difficult for both the youngsters and their parents, for it is during these years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s put to its greatest test. Parent-adolescent problems are usually an outgrowth of earlier problems. The adolescent is inclined to deny and gloss over the problems that his or her parents worry about. Parents worry about his or her negative attitude and are frustrated by this indifference. Early recognition of a problem is important, for it is easier to stop a new habit than an old one. Things go wrong for an adolescent if a problem is developing and his or her parents wait too long to intervene. It may be that the parents do not recognize the early warnings of a problem, or they may feel the problem will go away by itself. Many times this does happen through maturation alone, but a safe rule would be; when in doubt, inquire. Behavior is learned and habits get reinforcement. Parental practices usually explain the behavior of the child, for the child's behavior is largely a product of what has been

* Dept. of Education,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learned and reinforced. Parents have been treating symptoms too long. They must address themselves to causes, which requires long-range programs that are directed at prevention rather than identification or treatment. Based on the above premises, 20 guidelines were presented to prevent serious or minor problems between the adolescent and his or her parents. Basically, these were suggestions that call upon parents to show understanding and sensitivity to their adolescents. They represent a common sense approach which parents often take for granted, and a logical and human approach to the adolescent. The 20 guidelines were as follows.

1. Learn about the time of life that is called adolescence.
2. Parents are still the models for the child, although he or she is a teenager.
3. The adolescent still needs parental direction and guidance.
4. Parents should establish limits.
5. Parents can anticipate some rebellious behavior.
6. Don't allow yourself to become intimidated by threats.
7. The adolescent should know that he or she is responsible for his or her actions.
8. Encourage the adolescent to discuss his or her decisions and judgements.
9. Be a good listener.

10. Keep arguments to a minimum.
11. A compromise can often avert problems.
12. The adolescent should know what to expect from his or her parents.
13. Include, but don't force the adolescent to take part in family activities.
14. Encourage the adolescent to bring his or her friends home.
15. The adolescent needs some family responsibility.
16. Let the adolescent choose his or her own forms of leisure activities.
17. Nag less.
18. Parents should be careful not to judge the adolescent according to the way things were when they were that age.
19. Respect the adolescent's need for privacy.
20. Give the adolescent some of the freedoms he or she is seeking.

